

“자연을 노래하는 월등린 찬가는 없다”

- 동독 생태문학의 지형도 (Ⅱ)

박 현 정 (계명대)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50-70년대 「동독 생태문학의 지형도 (I)」¹⁾에 이은 두 번째 논문으로 80년대 동독 생태 및 환경문학의 특성과 전개 양상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한다. 1부에서 서술한 대로 1920-30년대 출생한 소위 2세대 작가인 하이너 뮐러, 크리스타 볼프, 사라 키르쉬, 라이너 쿤체, 볼프 비어만과 같은 문인들은 슈테판 헤믈린, 요하네스 보브롭스키, 요하네스 베허와 같은 동독 건설 초기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초기 사회주의 재건에 동참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이후 동독이 스탈린주의와 레닌주의에 의해 기형화되고 기술과 산업사회로 급변하면서 이들은 점차 체제 비판적으로 선화하였고, 훗날 동독의 ‘재야문학’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²⁾ 동독의 무절제한 개발정책과 산업화과정을 체험하면서 이들의 참여문학은 소극적 저항의 의미로서의 자연, 혹은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관념적 자연의 재현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즉 자연에 관한 이상적 상징이나 비유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잃어버린 아카디아를 애석해하던 비가적 음조는 점차 도시와 환경의 암울한 미래전망, 아포칼립스, 종말주의의 경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은 80년대 절정기를 맞이한 동독 생태문학의 전체적 흐름과 성격을 진단하고 ‘자연을 노래하는’ 이들 문학에 내포된 사회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 예로써 현실과 미래사회를 경고하는 귄터 쿠네르트 Günter Kunert, 한스 치불카 Hanns Cibulka의 생태시와 모니카 마론 Monika Maron의 여성적 생태산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박현정, “당연히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당연해” - 동독 생태문학의 지형도 (I), 실린 곳: 독일어문학 59/2012, 99-120쪽 참조

2) 류신, 통일 이후 독일 문학계의 지형변화, 실린 곳: 뷔히너와 현대문학 27/2006, 159-193쪽, 여기서 166쪽 참조

I. 80년대 동독 생태문학의 흐름

1. 나무와 숲, 마을

1980년대 동독문학에서 나무와 숲은 가장 익숙한 생태적 주제였다. 이 시기 주로 구 동독 슬라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리 브래잔, 키토 로렌, 유리 코흐, 요아힘 노보트니, 리아 피르카베츠는 잃어버린 삶, 잃어버린 마을을 주제로 환경문제를 인류생존의 문제와 함께 다루었다. 이들은 당시 슬라브의 호어스베르다(Hoyerswerda)와 로어 루사티아(Lower Lusatia)지역의 광산 건설에 반대하였다. 즉 동독 정부는 1972년과 1987년 사이 이 지역에 갈탄 광산업(Braunkohl-Bergbau) 개발을 이유로 97개에 해당되는 마을과 18,500여 명의 많은 소수민족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거나 강제 이주시켰다.³⁾ 당시 동독 문인협회(Schriftstellerverband der DDR)는 작센 주의 노흐텐(Nochten)지역의 노천탄광을 뮈크비츠(Mulkwitz), 로네(Rohne), 뮐로제(Mühlrose)로 확장하는 데⁴⁾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아래 1989년 8월 17일자 동독 산업자원부 장관의 해명문서를 공개했다.

노흐텐의 노천탄광을 위한 광산보호구역이 1972년 6월 14일 코트부스 구의회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다. 그 법안은 뮈크비츠, 뮐로제, 로네를 포함한 슬라이페의 남쪽 지역(전체 구역의 약 10%)에 위치한, 대략 1100명의 지역민과 400여 개의 주택을 포함한 슬라브 지역에 해당된다. 이 법안에 따라 2020년과 2030년 사이 갈탄광산이 개발될 것이다. 이는 동독에서 경제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갈탄을 적절한 시점에 광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사회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광산보호 구역의 해제에 관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⁵⁾

동독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삶을 보장한다는 명분하에 기술화와 도시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말 동독 주요 에너지원인 갈

3) Vgl. Jurij Koch, Plädoyer für einen Archipel, in: Neue Deutsche Literatur, 37. Jahrgang/Heft II/November 1989, S. 104ff.

4) 뒷면 <그림 1> 참조

5) Jurij Koch, Plädoyer für einen Archipel, a.a.O., S. 107

탄광의 65%가 이곳 지역에서 생성되면서 가속화되는 산업화에 대항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져갔다.⁶⁾ 특히 체코,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작센과 슬라브 지역의 문제는 동독 정부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갈탄 광석 에너지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급기야 러시아식 기술개발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강조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생태적 생존조건의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 동독 작가들은 정부에 의한 “도시화 Urbarmachung”, “인간에 의해 가공된 풍경으로의 재개발 Rekultivierung als vom Menschen gestaltete akzeptable Landschaften”, “최첨단 대량 광산 및 설비기술 hochentwickelte gigantische Abraum- und Fördertechnik”⁷⁾을 비난했다. 발전소와 광산개발에 반대하던 작가 브레잔 Jurij Brězan 역시 “광산 아래 우리의 노래, 우리의 동화, 우리의 언어가 놓여있다. 우리도 언젠가 연료처럼 사용될 것이다. 마을과 마을, 집과 집이 하나씩”⁸⁾이라는 글로써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소멸되어가는 언어, 노래, 동화, 삶의 터전을 풍자하고 있다. 동독 작가들은 기술과 성장신화로 인한 자연파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순환관계가 파괴된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적 인식과 사회적 동참을 유도하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침묵해선 안 된다. 어디선가 자연이 위협당하고 자원이 고갈되고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함께 얘기해야 한다. 부디 이 근심이 몇몇 환경보존주의자나 자연열광주의자들에 국한된다고 얘기하지 말라! [...] 너도 관련되어 있음을 느끼고 간섭하고 스스로 죄가 있다고 여겨라.⁹⁾

6) 뒷면 <표 2> 참조, Vgl. Peter Barker, “Die Schmerzen der endenden Art”. Ecological themes in the works of Sorbian Writers from the 1970s to the 1990s, in: Axel Goodbody (Hrsg.), Literatur und Ökologie, Amsterdam 1998, S. 199-212, hier S. 200

7) Jurij Koch, Pläyodor für einen Archipel, a.a.O., S. 106

8) Jurij Brězan, Der Gymnasiast, Berlin 1986, S. 213, hier zit. nach Peter Barker, “Die Schmerzen der endenden Art”, a.a.O., S. 200: “Unter dem Abraum liegen unsere Lieder, unsere Märchen, unsere Sprache. Wir werden verheizt, Dorf um Dorf, Familie um Familie.”

9) Reimar Gilsenbach, Rund um die Natur, Berlin 1982 hier zit. nach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Ökologische Kritik in der erzählenden DDR-Literatur, in: Redaktion Deutschland Archiv (Hrsg.), Umweltprobleme und Umweltbewußtsein in der DDR, Köln 1985, S. 201-249, hier S. 222

동독 작가들이 자원의 고갈을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척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발전사관의 근본문제는 기술 및 자원개발이 자연의 생명력을 고려하지 않는 반생태적 패러다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자연과 환경의 지나친 개발과 과도한 착취, 자원의 무절제한 남용이 인류의 전체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80년대 동독 생태와 환경, 기술과 진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생태 논의는 환경문제를 단순히 파괴된 자연, 훼손된 풍경에 관한 리얼리즘적 서술이 아니라 점차 소외화되어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 성찰,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대안담론을 의미한다. 특히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자연과학적 세계관은 산업사회의 근원적인 위기, 환경파괴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실존적 위기감으로 표출되었다.

강철의 거대새는 공기를 가로질러 날아가고, 전투헬기는 대지를 가르며 교회 첨탑 위로 날아간다. 해안가에는 파괴자가 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내적 긴장이 인간에게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인간의 사고, 감정, 행위로 이어진다. [...] 과연 인간은 몰락하는 것인가? ¹⁰⁾

한스 치볼카, 모니카 마론, 마리안네 브룬, 임트라우트 모르그너, 크리스타 볼프와 같은 일련의 작가들은 기술 낙관주의를 불신하고 문명 자체를 주제화함으로써 물질, 과학, 산업에 의한 환경파괴의 경악스러움을 일깨우는 생태문학을 저술했다. 특히 볼프는 과학으로 인한 ‘탈인간화 (Entpersönlichung)’ 현상을 로켓과 원자폭탄에 비유하면서 “그들(과학자들)의 진실이란 [...] 길이를 재고, 무게를 달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치부하는 것”¹¹⁾이라고 비판한다. 엄밀히 말

10) Hanns Cibulka, Swantow. Die Aufzeichnungen des Andreas Flemming, Halle/Leipzig 1982, S. 107: “Metallene Riesenvögel ziehen durch die Luft, Kampfhubschrauber fliegen in Kirchturmhöhe über das Land, vor der Küste liegen die Zerstörer. Die innere Spannungen, die eine solche Umwelt auslöst, gehen an keinem Menschen spurlos vorbei, sie übertragen sich auf sein Denken, Fühlen und Handeln. [...] Steht die Menschheit vor ihrem eigenen Abgrund?”

11) Christa Wolf, Aus den Frankfurter Vorlesungen, in: Sinn und Form 1/1983, S. 46: “Ihre Wahrheit [...] heißt: Was nicht meßbar, wiegbar und verifizierbar ist, das ist so gut wie nicht vorhanden.”

하면 볼프가 비난하는 과학은 그 자체가 문제시 된다고 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문명의 역기능, 즉 상업과 자본의 복합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심각한 자연파괴,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불균형성, 인간의 도구화였다. 이러한 반계몽적 사유는 쿠네르트의 지적처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편향적인 “과학적 세계관 wissenschaftliche Weltanschauung”¹²⁾에 대한 혐오감으로 나타났다.

2. 종말문학

나무, 숲, 마을의 파괴에 관한 사실적 주제 외에 80년대 동독 생태문학의 하나의 큰 특징으로 환경오염이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면서 긍정적 미래상의 부재, 인류의 암담한 최후, 부정의 유토피아를 묘사하는 “종말-문학 Endzeit-Literatur”¹³⁾이 크게 성행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 생태문학의 묵시록적 성격은 60년대 라이만 Brigitte Reimann에 의해 명명된 동독의 ‘도달문학 Ankunfts-literatur’의 본질과는 상반된 특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동독예술과 문학이 긍정적인 영웅상, 모범적이고 낙관적인 역사관,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체제긍정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면, 80년대 생태문학의 양상은 변질되어가는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부정적인 미래비전의 제시로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표면상 현실과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이들 종말문학이 반사회적인 좌절, 체념, 무관심한 도피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 동독의 많은 문인들은 가능한 미래사회를 상상, 환상, 왜곡, 과장의 문학적 전략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생태문학의 생산적 비판과 능동적 사회개혁 의지는 기존의 성장 이데올로기, 동독 정부의 이념적 문화정책, 기존의 체제 옹호적 글쓰기로는 더 이상 환경문제를 주제화할 수 없다는 필연적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나아가 생태문제가 이념적 체제를 넘어선 초국가적, 미래적 주제임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학은 장차 인간과 자연의 균형적 관계 회복을 위해 새로운 인간(사회) 및 문화 내적인 소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2)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a.a.O., S. 219에서 재인용

13) Ebd., S. 220

3. 생태적 여성문학

종말문학과 더불어 80년대 동독 생태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심층생태학의 한 분야이자 미스 Maria Mies나 쉬바 Vandana Shiva로 대표되는 오늘날 생태 페미니즘의 초기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독에서 여성문학이 생태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맨 처음 나온 것은 1983년 <9차 동독 문인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길젠바흐 Reimar Gilsenbach는 종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인간의 특징 Charakterzug des neuen Menschen”으로서 “감정의 학습 Erziehung der Gefühle”¹⁴⁾을 강조하였다. 생태적 여성문학은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와 정치의 변화를 꿈꾸되 무조건적인 반사회성으로 과격하게 맞서거나 정치, 경제 구조의 급진적 혁명을 부추기지 않았다. 또한 현실로부터의 체념, 침잠과 같은 소극적 저항의 자세를 유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남성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질서에 대한 자각과 경각심을 일깨우며 “의식의 부드러운 혁명 sanfte Revolution des Bewußtseins”¹⁵⁾으로 남성중심의 파괴적 신화와 거리를 두었다. 억압된 여성성과 자연성의 회복을 통해 과학과 시, 오성과 감정, 존재와 소유, 세계관과 자기실현을 균형적으로 재통합하고자 하였다. 생태페미니즘의 담론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무기, 전쟁, 포획, 갈취, 훼손과 같은 정복에의 욕구는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남성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사회, 과학, 기술을 지배하는 정복적 사고는 지구를 파멸시켰다. 그러나 남성들의 정복욕은 문화 학습의 결과이지 결코 남자의 본성은 아니다. 이러한 학습이 자기파괴에 이르는 도착화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까지 오직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능력과 미덕을 정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인류의 다른 절반, 즉 여성만이 핵과 생태 참사를 피할 수 있다. 오직 남성과 남성성에 의해 주도되는 정부가 모든 국제정치와 생태학 그리고 여성의 고유한 능력과 미덕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억압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지구는 구원될 수 있다.¹⁶⁾

14) Reimar Gilsenbach, Diskussionsbeitrag auf dem IX. Schriftstellerkongreß, in: Neue Deutsche Literatur 9/1983, S. 88f.

15)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a.a.O., S. 221

16) Irtraud Morgner, Amanda. Ein Hexenroman, Berlin und Weimar 1983, S. 365

동독 켐니츠 출신의 여성작가 모르그너 Irmtraud Morgner는 남성중심의 치열한 이기주의, 권력에의 본능, 피로 물든 무력혁명, 전쟁, 영웅주의와 같은 수직적 위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연과 수평적 삶을 이끄는 여성적 의식으로의 전향을 권고한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조우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혁명 Revolution gegen uns selbst’를 소망한다. 여성적 본성의 회복과 생명존중에 바탕을 둔 이러한 ‘내적 혁명 innere Revolution’의 분위기는 도덕성(이성)과 감성, 자연과 인간의 균형성을 회복하고 합리적 생산과 소비를 위한 생태적 대안사회를 지향한다. 모니카 마론 Monika Maron 의 1981년에 발표된 자전적 처녀작 『재 Flugasche』¹⁷⁾ 역시 이러한 여성적 생태사유를 잘 보여준다. 우선, 소설에 등장하는 여기자 조세파 나들러는 동독의 한 공업도시 B.(비터펠터 시(市)의 가칭)에 건설된 화력발전소를 방문한 후 국가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오도된 환경오염의 실태를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보고한다.

공장의 굴뚝은 총구처럼 하늘을 찌르고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도시를 향해 오물 찌꺼기를 쏟아낸다. 총성도 없이, 조용히, 서서히 조금씩 소리 없이 떨어지는 눈처럼 처마 밑에 고였다가 지붕을 뒤덮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향을 알아채기 좋은 이 연기. 암모니아까지 쭉 가셔서 왼쪽 질산까지 가세요. 그러다 목과 기관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거든 뒤돌아와 의사를 부르세요. 그건 이산화황이니까요.¹⁸⁾

주인공 1인칭 화자는 자신이 방문하기 전 상상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도시 B의 끔찍하고 추악한 풍경에 경악한다. 그녀는 총구처럼 보이는 공장의 굴뚝, 쓰레기, 소리없이 뿜어내는 암모니아, 질산, 이산화황의 유해 독가스로 뒤덮인 도시를 묘사하면서, 더 이상 자연과 공존하지 않는 도시의 “반-메카니즘 Un-Mechanismus”¹⁹⁾을 고발한다. 또한 친구 루이제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결벽증²⁰⁾, 고사되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들의 풍경 등을 묘사하면서 “동정 Mitleid”과

17) Monika Maron, Flugasche, Frankfurt a. M. 1981

18) Ebd., S. 16

19) Ebd., S. 33

20) Vgl. Ebd., S. 16f. 조세파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매주, 매일 창문을 닦는다. 끔찍한 오물 가운데 말끔한 창문을 볼 수 있어. 그들은 오직 순백의 셔츠를 입고 자

“수치 Scham”²¹⁾를 느낀다고 서술한다. 이 작품은 산업화로 인한 생태위기의 사실적 보고 외에도 주인공이 그 파괴의 원인을 남성중심의 “권력관계와 이데올로기 Machtverhältnis und Ideologien”²²⁾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작품의 중반부에서 3인칭 화자에 의해 서술된 주인공 조세파는 과거에 ‘숨쉬고, 사랑하고, 먹고, 아이를 키우고 낳는’ 여성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을 “품위없는 생존의 형태 eine unwürdige Form der Exstanz”²³⁾라고 단정했고 이로부터 늘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직업을 통해 경험한 공적인 사회란 결코 “자연적인 것 Natürliches” 이 아닌 “피조물의 그늘 Schatten ihrer Kreatur” 혹은 “부조리한 것 Absurde[s]”²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모든 현실이 위선, 거짓, 상상, 부조리, ‘반자연적인 것 (widernatürlich)’이라 여기며 이제껏 “삶이 아니라 nicht das Leben selbst”²⁵⁾고 생각했던 여성적 본능을 옛 애인 크리스티안을 만나 새롭게 느끼게 된다. 그녀는 잃어버린 그리움 Sehnsucht, 고통 Schmerz, 욕망 Sucht, 사랑 Liebe의 본성을 회복하고 근원적 여성성을 치유한다. 자신의 내부에서 “생기있는 감성적 본질 ein lebendes, fühlendes Wesen”²⁶⁾을 재발견한 주인공은 이제 여성으로서의 행복, 더 나아가 진정한 성의 평등을 주장한다.

가끔 우리는 얼핏보아 당연한 듯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불공평한 의미를 강요하는 질문이란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늘 젊고 아름다워야 하냐고 묻습니다. 왜 희끗해진 흰 머리를 부끄러워해야 하냐고. 남성들이 관자놀이 흰 머리를 존엄의 상징으로 여기는 반면에 말입니다. [...] 더욱 나쁜 것은 어설픈 의식을 소유한 남성들이 여성을 그들과 동일하게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을 평가하다 이내 여성의 다리를 쳐다봅니다. 여

신의 아이들에게 순백의 양말을 신게 하지. 상상해봐, 검은 기름이 똥똥 떠 있는 빗물 사이로 흰색 양말이라니. 가게 여종업원이 그러더군. 이곳에선 흰색 스웨터가 가장 잘 팔린다고.”

21) Ebd., S. 17

22) Ebd., S. 155

23) Ebd.

24) Ebd.

25) Ebd.

26) Ebd., S. 156

리본은 이런 억압의 되풀이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등을 계속 주장한다면 언젠가 그들은 여성들을 국회로 불러들이겠지만, 우리는 다시 볼모로 잡혀 남자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27)

군중연설을 통해 조세파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를 용인하지 않는 힘과 권력의 질서를 비판한다. 또한 그녀는 여성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불평등의 의식체계와 환경적으로 구조화된 ‘남자의 법칙’을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한다. 결국 그녀에게 생태적으로 지향된 “자연스런 삶 natürliche[s] Leben”²⁸⁾이란 여성을 구속하는 기존질서에 대항하기 이전에 남성적 문명의 그늘 아래 예측된 여성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남성과 여성이 가진 본래적 가치와 성격, 특성을 회복, 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노보트니의 『작별의 디스코 Abschiedsdisco』²⁹⁾와 함께 동독의 대표적 생태소설로 분류되는 이 소설은, 인간과 자연이 모두 황폐해진 도시의 추악함을 고발하고 동독 사회주의의 반생태적 현실을 비판하는 것 외에도 작품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남성적 위계 속에 억제된 여성성, 여성과 남성의 본질, 표면상 성의 평등을 강조하나 실제 가정과 직장의 이중적 삶에 시달리던 동독 여성의 현실, 사회주의 발전의 급진적 행보에 가려진 여성성의 부각 등의 반체제적 묘사로 인하여 동독의 검열과 감시를 받았으나 결국 1981년 서독의 피셔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27) Ebd., S. 159ff.: “Man hört oft unter Frauen eine Frage, die anfangs zwar berechtigt scheint, doch spart ihr nicht mit Scharfsinn, Frauen, werdet ihr alleine merken, daß ungerechter Sinn die Frage euch diktierter. Ihr fragt, warum ihr immer jung sein müßt und schön, für jedes graue Haar euch schämen sollt, während die Männer graue Schläfen als Ausdruck ihrer Manneswürde tragen. [...] Noch schlimmer ist: Die Weichen unter ihnen, mit wenig ausgeprägtem männlichen Bewußtsein, betrachten Frauen jetzt schon fast wie Männer. Sie sehn auf ihre Leistung, dann erst auf die Beine. Das könnt ihr nicht gewollt hab’n, Frauen, daß zu dem einen Zwang der andere kommt. Wenn ihr so weiterschreit nach Gleichberechtigung, dann nehmen sie uns eines Tages noch in die Regierung, dann wären wir gefangen und müßten mitspielen nach der Männer Regeln. Ich frag euch, Frauen, wollt ihr das?”

28) Ebd., S. 156

29) Vgl. Joachim Nowotny, Abschiedsdisco, Berlin, 1981

II. 현실과 어두운 미래

1. 치불카의 상황보고

자연을 이야기하는 70년대 동독 시인들의 지배적인 음조는 낭만적 감성에 뿌리를 둔 회상과 기억의 혼합이었다. 종래의 이상적 자연미와 이미지가 시인이 직접 처한 현실과 불일치하는 과정³⁰⁾을 거치면서 80년대 생태적 자연시는 기술지배와 과학, 문명에 대한 깊은 우려와 비판을 다루었다. 또한 다소 장엄한 비가적 음조와 아포칼립스가 주된 색채를 이루었다. 기존 자연시의 특성과는 달리 80년대 동독 생태시는 내용상 “생태참상의 경제적, 사회-이념적 조건과 생태적 결과 die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ideologische Bedingtheit der Umweltmisere und ihre ökologische Konsequenz”³¹⁾를 함축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래 글은 80년대 생태문제가 기술과 산업, 정치체제, 문명의 제 요소와 결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시작을 알리던 신호음은 어느새 불안의 경고음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연 속 평온한 산책으로의 초대도, 풍경의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는 일도 아니다. 오직 인간이 자연에 가한 상처가 남아있다. 자연의 안식처를 향한 시인의 밝고 평온한 소풍의 시간은 오래전 동독이 호시절을 누리던 폭풍의 프로메테우스 같은 자연정복의 시간과 함께 사라졌다. [...] 과거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예전에 볼거리 많던 곳에서 이제 시인은 비판적 분석적인 시선으로 끔찍한 문명의 흔적을 찾고 있다. ³²⁾

서정시의 경우 가히 브레히트를 계승하는 듯한 많은 자연시들이 동독작가들에

30) Vgl. Ursula Heukenkamp, Kunstbewußtsein und geistige Strenge. Zur Entwicklung der Lyrik in der DDR der siebziger Jahre, in: P.U.Hohendahl/P. Herminghouse(Hrsg.), Literatur der DDR in den siebziger Jahren, Frankfurt a. M. 1983, S. 82-113, hier S. 101

31) Gunter Reus, “Gegen uns geht es, gegen den Seestern und das Getreide”. Natur, Umwelt, Gesellschaft in der deutschen Lyrik nach 1945 - ein Überblick, in: Diskussion Deutsch, 13. Jahrgang 1982, S. 403-424, hier S. 419

32) Klaus Schumann, Lageberichte zur ökologischen Situation - Beobachtung zur Lyrik der achtziger Jahre, in: DDR-Literatur '85 im Gespräch, hrsg. v. Siegfried Rönisch, Berlin/Weimar 1986, S. 23-43, hier S. 23f.

의해 생태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참여적으로 노래되었다. 즉 머지 않은 미래에 이성 및 기술 중심주의에 대한 반계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 불안, 회의의 목소리가 등장했다. 이제 문학은 브레히트적인 “나무에 관한 대화가 범죄가 되는 ein Gespräch über Bäume fast ein Verbrechen”³³⁾ 시대에서 “나무에 관한 대화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ein Gespräch über Bäume [ist] kein Verbrechen mehr”³⁴⁾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생태시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미학적 전도과정은 우선 시인 주체가 더 이상 아름다운 자연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는 미적 대상의 부재에 기인한다. 그들은 현실에서 인지되는 자연이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현실비판에 자연이란 소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60년대 자연이 당시 많은 젊은 시인들 - 브라운, 미켈, 키르쉬 -에게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필수적인, 생산력 증강을 위해 고갈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자연보고로 간주되었다면, 70-80년대 자연과 풍경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자연과의 경솔하고 무지한 관계 [...] 산업생산의 영향, 과학과 기술의 성과, 관광주의이다. ³⁵⁾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80년대 동독 생태시는 이제 생태 파괴의 현실, 즉 삭막한 도시전경이나 잃어버린 고향, 낯선 유년시절 풍경을 노래하는 것 외에도 다가올 어두운 미래에 대한 위협, 제 3차 대전을 예고하는 잠재적 핵 재앙, 산성비, 숲의 죽음, 인류의 부정적 미래 등 인류의 종말을 경고하는 다양한 문학적 암시가 등장한다. 미래 사회의 아포칼립스 비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달한다. 체코계 시인 치불카 Hanns Cibulka는 아래 시 「상황보고 Lagebericht III」에서 문명의 밝은 그늘 아래 오히려 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시각과 청각의 손실을 말함으로써 미래사회의 감각과 판단의 마비를 절망적으로 묘사한다.

33) Bertolt Brecht, An die Nachgeborenen, in: Gesammelte Werke in 20 Bänden, Bd. 9: Gedichte 2, Frankfurt a. M. 1967, S. 723

34) Hans Magnus Enzensberger, Natürliche Gedichte, Frankfurt a. M./Leipzig 2004, S. 73

35) Klaus Schumann, Lageberichte zur ökologischen Situation - Beobachtung zur Lyrik der achtziger Jahre, a.a.O., S. 24

아주 어두워질 거야.
 지금 이 세상에 빛나는 도시들은,
 우리는 볼 수 없을 거야,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우리는 들을 수 없을 거야.³⁶⁾

치불카는 독일 북동쪽의 휴양섬 뤼겐을 배경으로 한 서간체 소설 『슈반토브 Swantow』(1982)를 통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³⁷⁾ 내용상 5개로 나뉘어진 이 소설에는 환경의식을 주제로 한 「상황보고 Lagebericht」라는 연작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1인칭 화자인 시인은 더 이상 이상적 자연을 찬양하며 예술의 여신 ‘뮤즈처럼’ 아름다운 시를 쓰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비탄한다.³⁸⁾ 도시 속 밝은 불빛 속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외눈박이 신세가 되어버린 시인은 마침내 “자연을 노래하는 횡달린 찬가는 없다 Kein Hölderlin-Hymnus/auf die Natur”³⁹⁾고 선언한다. 환경파괴의 과정이 미적 대상의 파괴, 또 이를 바라보는 지각능력의 파괴로 이어지면서 시인은 고통스러워한다. 그에게 자연과학과 산업의 신화에 희생양이 되어 버린 파괴된 자연의 모습은 예술의 부재를 의미하며 정신적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 치불카는 경직되어가는 사회주의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소외를 아래와 같이 성찰한다.

근대 기술은 인간에게 마치 최면술과 같은 힘을 행사한다. [...] 컴퓨터는 우리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 스스로 부여해야 할 의미를 결코 측량할 수 없다. [...] 돌아가는 기계 바퀴만을 바라보는 자는 한없이 빈곤해질 것이다.⁴⁰⁾

36) Hanns Cibulka, Swantow. Die Aufzeichnungen des Andreas Flemming, Halle/Leipzig 1982, S. 65: “Es muß sehr dunkel sein/in den Lichterstädten der Welt,/daß wir so wenig sehen,/sehr laut,/daß wir so wenig hören.”

37) Vgl. Eckart Förtsch, Fragen menscheitsgeschichtlichen Ausmaßes Wissenschaft, Technik, Umwelt, in: Gisela Helwig (Hrsg.), Die DDR-Gesellschaft im Spiegel ihrer Literatur, Köln 1986, S. 85- 112, hier S. 91

38) Vgl. Hanns Cibulka, Swantow, a.a.O., S. 36: “Nicht musisch/lebt heute der Mensch [...]”

39) Ebd., Lagebericht III, S. 64

40) Hanns Cibulka, Sanddornzeit. Tagebuchblätter von Hiddensee, Halle/Leipzig 1971, S. 90ff, hier zit. nach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a.a.O., S. 212:

현실 사회주의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80년대 동독 생태문학은 ‘컴퓨터’, ‘기계바퀴’에 의한 물질주의의 맹신과 자연과학 숭배로 인한 삶의 변화를 문학적으로 묘사한다. 치불카는 주로 문명과 기술의 진화가 인간성의 상실, 더 나아가 미래 인류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그의 「상황보고 4 Lagebericht IV」에서 낯선 과학용어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

고속 핵 증식로가
죽음의 잣대로
땅을 측량한다.

원자로관으로 된
물침대 안에선
가압 경수로의 냉각수가
뿔어져 나온다

난로 위엔
방사성 핵종

인간은
방사선 사각 공간에 앉아 있다.

그 오물 속에
죄가
영켜 고여 있다.⁴¹⁾

“Die moderne Technik übt auf den Menschen eine hypnotisierende Kraft aus. [...] Auch das elektronische Rechengehirn wird uns den Sinn, den wir dem Leben geben müssen, um zu bestehen, nicht errechnen. [...] Wer nur die Räder sieht, die sich drehn, wird maßlos verarmen.”

41) Hanns Cibulka, Swantow, a.a.O., S. 77f.: “Mit der Klafter des Todes/vermessen schnelle Brüder/das Land./Im Wasserbett/Kernstäbe./Primärkreislauf/abgeblasen//über den Kamin/ die Radionuklide./Der Mensch/im Strahlengeviert./Im Abwasser/staut sich die/Schuld.”

1957년/1962년 로젠도르프에서 구소련의 지원으로 행해진 핵실험과 원자폭발(fallout)을 계기로 씌여진 이 시는 기존 시어와는 달리 ‘고속 핵 증식로’, ‘원자관’, ‘방사선 핵종’ 등의 생경한 과학용어의 사용을 통해 기술신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다. 당시 동독에서는 효율적인 전력생산을 위한 방사선 핵종의 개발이 장래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파괴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각층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수 지식층과 문인들에 의해 언젠가 원자력과 핵실험에 대한 죄의 값을 치루리라는 미래적 책임의식이 ‘죽음 Tod’의 파국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실제 동독은 건설 초기 라인스베르크에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설립한 이후, 70년대 노르트(루민 Lubmin 혹은 브루노 로이시너 Bruno Leuschner), 스텔달(Stendal)에 핵발전소를 증설하였다.⁴²⁾ 치불카는 노르트에 새로이 건설될 핵발전소에 대한 우려를 “자연이 반격한다 [...]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섬의 동쪽 해안에서 헤엄칠 수 있을지 알 수 있겠는가 Die Natur schlägt zurück, [...] wer weiß, wie lange wir an der Ostküste unserer Insel noch baden können.”⁴³⁾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는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이 매일 자신과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재생할 힘을 상실했다. 인간은 스스로를 살해한다. 물론 시한부 살인이지만”⁴⁴⁾이라고 경고조로 서술하면서 환경과 인류생존의 암울한 미래를 근심과 불안, 호소와 비난의 눈길로 바라본다.

2. 쿠네르트의 대홍수

쿠네르트 Günter Kunert 역시 “맹렬한 염세주의 vehemente[r] Pessimismus”⁴⁵⁾적 성향으로 인류의 근대 문명 프로젝트를 거부한다. 당시 “항복하라, 핵물리학 여

42) 뒷면 <그림 3> 참조, Vgl. Lothar Jegendorf und Wolfgang Geierhos, “In aller Stille rieselt der Russ aus meinen Poren”. Interpretationen und Materialien zur Umweltlyrik aus der DDR, in: deutsche studien, 90/1985, S. 131-153, hier S. 150f.

43) Hanns Cibulka, Swantow, a.a.O., S. 64

44) Hanns Cibulka, Swantow, in: Neue Deutsche Literatur, 4/1981, S. 49: “Die Natur hat gar nicht mehr die Kraft, all das zu erneuern, was wir täglich in uns und in unserer Umwelt zerstören. Der Mensch mordet sich selbst, allerdings ist es ein Mord auf Zeit.”

45) Axel Goodbody, Literatur und Ökologie, Amsterdam 1998, S. 23

왕이여! Ergib dich, Königin Atomphysik!”⁴⁶⁾라는 시대적 구호는 기술진보와 이에 부합하는 과학적 확일성에 대한 동독 지식인들의 반발을 짐작케 한다. 쿠네르트와는 다른 시인들과 달리 동독의 영구체류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불만을 품고 1979년 서베를린으로 이주한다. 그는 인간, 자연, 기술의 관계에 관한 불만족과 미래사회의 재앙을 아우슈비츠에 비유한다.

인간의 대량살상, 생명체의 잠재적 종말이야말로 [...] 가장 심각한 기술 혁명인 것 같다. 기술시대의 초기에 아우슈비츠가 있었고, 히로시마가 있었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이런 위대한 순진함만이 기술을 사회적-인간적 진보와 동일시 하고자 할 것이다.⁴⁷⁾

이러한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와 같은 대량살상, 위협적인 인류의 미래에 관한 경고는 그의 시 「대홍수 전 Vor der Sintflut」(1980)에도 잘 드러난다.

저녁나무에
순수한 공기로 된 형상
[...] 나는 물었지
이것이 작별인지
아니면 종말의
신호인지

지구가 가라앉으면

46) David Bathrick, Die Zerstörung oder der Anfang von Vernunft? Lyrik und Naturbeherrschung in der DDR, in: Reinhold Grimm/Jost Hermand (Hrsg.), Natur und Natürlichkeit, Königstein/Ts. 1981, S. 150-167, hier S. 153

47) Fritz J. Raddatz, Traditionen und Tendenzen; Materialien zur Literatur der DDR, Frankfurt a. M. 1972, S. 173에서 재인용: “Mir scheint als bedeutendste technische Revolution [...] die Massenvernichtung von Menschen, das möglich gewordene Ende allen Lebens. Am Anfang des technischen Zeitalters steht Auschwitz, steht Hiroshima, die ich nur in bezug auf gesellschaftlich organisiert verwendete Technik hier in einem Atemzug nenne. Ich glaube, nur noch große Naivität setzt Technik mit gesellschaftlich-humanitärem Fortschreiten gleich.”

지평선 뒤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⁴⁸⁾

이미 1960년대 시 「라이카 Laika」에서 인류의 오만함에 ‘경고 Warnung’를 보내던 쿠네르트는 위의 시에서 마치 선한 사람 노아처럼 종말의 신호를 받아들이며 ‘작별’을 준비한다. 시인이 ‘지구가 가라앉는’ 파국적 이미지를 통해 디스토피아의 암울한 미래를 노래하는 것은, 이러한 생태적 경고시가 단순한 불안의 표출이 아닌 종말의 개연성을 통하여 현실개혁과 대안사회의 필요성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쿠네르트는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자연 파괴를 야기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를 예견이나 하듯이 80년대 초 핵무기, 핵전쟁, 냉전 속 군비 경쟁을 지속적으로 비난했다. 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 인류 최후의 날을 연상시키는 그의 묵시록적 생태시는 궁극적으로 현실과 문명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미래사회를 개선하려는 참여성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나오는 말

동독 생태문학은 문명과 자연이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문학적 생태논의를 통해 인류의 성장, 물질중심주의, 기술혁명의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80년대 동독은 자연의 파괴에 관한 논의가 인간의 파괴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면서 문학의 염세적 색채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문학과 여성문학의 역할은 또 다른 생태사회로 이행하는 변증법적 축을 마련하였다. 즉 변혁과 의무를 강조하는 생태문학의 참여적 특성은 첫째, 생태위기에 관한 현실인식 뿐만 아니라 독자를 위한 계몽과 호소, 정보전달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동독 생태논의가 몇몇 작가들과 소규모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한 환경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단호한

48) Günter Kunert, Vor der Sintflut, in: Ders., Abtötungsverfahren, München/Wien, 1980, S. 67: “In den Abendbäumen/Gebilde aus purer Luft/[...] und ich fragte mich/ob das der Abschied sei/oder sonst ein Zeichen/des Endes//Denn die Erde versinkt/ hinter ihrem Horizont/nichts geht mehr auf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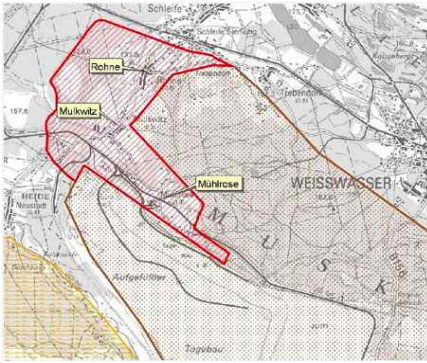
지배시스템과 국가 차원의 정치적 제재력은 미약했으나,⁴⁹⁾ 생태문학이 현실비판과 미래사회 개혁의 선두에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둘째, 동서독 모두 공유한 생태 위기라는 현실문제의 문학적 쟁점화는 기존에 사용된 자연모티브와 자연이미지의 새로운 질적/양적 확대를 가져왔다. 즉 미학적인 측면에서 생태문학은 종래 고전적, 관념적 “자연의 탈신화화 Entmythologisierung der Natur”⁵⁰⁾, “메타포의 소멸 Ende der Metapher”⁵¹⁾ 혹은 “메타포의 폐위 Entthronung der Metapher”⁵²⁾를 용인함으로써 직유, 은유, 상징 등의 예술적 기능을 상실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자연, 환경, 정치, 사회의 제 문제가 텍스트에 하나로 융해되면서 사회적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요컨대 자연과 인간의 생태적 불균형성을 주제로 한 동독의 80년대 생태문학은 첨예화되는 위기의식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동시에 이를 반어적으로 극복하려는 종말의 문학적 전략과 새로운 생태적 의식으로 전환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여성문학의 언어형식을 통해 산업화 이전으로 퇴행할 수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는 사회적 현실 앞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청하였다.

49) Vgl. Gerhard Timm, Die offizielle Ökologiedebatte in der DDR, in: Redaktion Deutschland Archiv (Hrsg.), Umweltprobleme und Umweltbewußtsein in der DDR, Köln 1985, S. 117-149, hier S. 139

50) Lothar Jegensdorf und Wolfgang Geierhos, “In aller Stille rieselt der Russ aus meinen Poren”, a.a.O., S. 145

51) Silvia Volckmann, Zeit der Kirschen? Das Naturbild in der deutschen Gegenwartslyrik: Jürgen Becker, Sarah Kirsch, Wolf Biermann, Hans Magnus Enzensberger, Königstein/Ts. 1982, S. 67

52) Wilfried Barner u.a.(Hrsg.),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2006 (2. Aufl.), S. 849



<그림 1> 1989년 작센 노흐텐 채굴광
확장계획

<그림 2> 동독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표 1> 동독의 에너지원의 전력생산수치(1960-1982)

연간 생산전력	1960	1970	1980	1981	1982
원갈탄	72,7	83,2	78,1	79,3	81,5
갈탄/연탄	6,8	1,8	0,6	0,5	0,5
석탄	4,4	1,4	0,5	0,3	0,3
핵연료	-	0,7	12,0	11,8	10,5
수력	1,5	1,8	1,7	1,7	1,7
석유	0,1	2,6	1,2	0,9	0,7
기타 연료	14,5	8,4	5,9	5,4	4,8
합계 (%)	100	100	100	100	100

(Quelle: Statistisches Jahrbuch 1983 der DDR, hrsg. v. der staatlichen Zentralverwaltung für Statistik. 29. Jahrgang, Berlin 1983)

참고문헌

1차문헌

- Cibulka, Hanns, Swantow. Die Aufzeichnungen des Andreas Flemming, Halle/Leipzig 1982
- Kunert, Günter, Abtötungsverfahren, München/Wien, 1980
- Maron, Monika, Flugasche, Frankfurt a. M. 1981

2차문헌

- 류신, 통일 이후 독일 문학계의 지형변화, 실린 곳: 뷔히너와 현대문학 27/2006, 159-193쪽
- 박현정, “당연히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당연해” - 동독 생태문학의 지형도 (I), 실린 곳: 독일어문학 59/2012, 99-120쪽
- Barker, Peter, “Die Schmerzen der endenden Art”. Ecological themes in the works of Sorbian Writers from the 1970s to the 1990s, in: Axel Goodbody (Hrsg.), Literatur und Ökologie, Amsterdam 1998, S. 199-212
- Barner, Wilfried u.a. (Hrsg.),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2006 (2.Aufl.)
- Bathrick, David, Die Zerstörung oder der Anfang von Vernunft? Lyrik und Naturbeherrschung in der DDR, in: Reinhold Grimm/Jost Hermand (Hrsg.), Natur und Natürlichkeit, Königstein/Ts. 1981, S. 150-167
- Brecht, Bertolt, An die Nachgeborenen, in: Gesammelte Werke in 20 Bänden, Bd. 9: Gedichte 2, Frankfurt a. M. 1967
- Enzensberger, Hans Magnus, Natürliche Gedichte, Frankfurt a. M./Leipzig 2004
- Försch, Eckart, Fragen menschheitsgeschichtlichen Ausmaßes Wissenschaft, Technik, Umwelt, in: Gisela Helwig (Hrsg.), Die DDR-Gesellschaft im Spiegel ihrer Literatur, Köln 1986, S. 85-112
- Gilsenbach, Reimar, Diskussionsbeitrag auf dem IX. Schriftstellerkongreß, in: Neue Deutsche Literatur 9/1983, S. 88f.
- Heukenkamp, Ursula, Kunstbewußtsein und geistige Strenge. Zur Entwicklung der Lyrik in der DDR der siebziger Jahre, in: P. U. Hohendahl / P.

- Herminghouse (Hrsg.), Literatur der DDR in den siebziger Jahren, Frankfurt a. M. 1983, S. 82-113
- Jegensdorf, Lothar und Geierhos, Wolfgang, "In aller Stille rieselt der Russ aus meinen Poren". Interpretationen und Materialien zur Umweltlyrik aus der DDR, in: deutsche studien, 90/1985, S. 131-153
- Knabe, Hubertus,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Ökologische Kritik in der erzählenden DDR-Literatur, in: Redaktion Deutschland Archiv (Hrsg.), Umweltprobleme und Umweltbewußtsein in der DDR, Köln 1985, S. 201-249
- Koch, Jurij, Plädoyer für einen Archipel, in: Neue Deutsche Literatur, 37. Jahrgang/Heft II/November 1989, S. 104ff.
- Koch, Jurij, Pläydor für einen Archipel, in: Neue Deutsche Literatur 37/1989, S. 104-108
- Morgner, Irmtraud, Amanda. Ein Hexenroman, Berlin und Weimar 1983
- Nowotny, Joachim, Abschiedsdisco, Berlin, 1981
- Raddatz, Fritz J., Traditionen und Tendenzen; Materialien zur Literatur der DDR, Frankfurt a. M. 1972
- Reus, Gunter, "Gegen uns geht es, gegen den Seestern und das Getreide". Natur, Umwelt, Gesellschaft in der deutschen Lyrik nach 1945 - ein Überblick, in: Diskussion Deutsch, 13. Jahrgang 1982, S. 403-424
- Schumann, Klaus, Lageberichte zur ökologischen Situation - Beobachtung zur Lyrik der achtziger Jahre, in: DDR-Literatur '85 im Gespräch, hrsg. v. Siegfried Rönisch, Berlin/Weimar 1986, S. 23-43
- Timm, Gerhard, Die offizielle Ökologiedebatte in der DDR, in: Redaktion Deutschland Archiv (Hrsg.), Umweltprobleme und Umweltbewußtsein in der DDR, Köln 1985, S. 117-149
- Volckmann, Silvia, Zeit der Kirschen? Das Naturbild in der deutschen Gegenwartslyrik: Jürgen Becker, Sarah Kirsch, Wolf Biermann, Hans Magnus Enzensberger, Königstein/Ts. 1982

Zusammenfassung

„Kein HÖ Iderlin–Hymnus auf die Natur“

– Die Topographie der ökologisch orientierten Literatur in der DDR (II)

Park, Hyunjeong (Keimyung Univ.)

Dieser Aufsatz ist die Fortsetzung meiner Untersuchung über die ökologisch orientierte Literatur der DDR, deren erster Teil sich mit den sechziger und siebziger Jahren befasste.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sogenannte „Endzeit-Literatur“ der achtziger Jahre in der DDR, und es wird überwiegend die dystopische Vision der Menschheit behandelt. Das entsprechende Motto der damaligen Zeit hieß: „Erst stirbt die Natur und dann der Mensch!“

Vor dem Hintergrund einer sich weltweit verschärfenden Ost-West-Konfrontation gaben die in den achtziger Jahren wirkenden Schriftsteller ihrer Stimmungslage gegenüber der unerwünschten DDR-Gesellschaft Ausdruck und griffen dabei sowohl zu mythologischen Stoffen, wie sie auch auf das Fehlen von positiven Zukunftsvorstellung (wie Günter Kunert, Hanns Cibulka) hinwiesen. Für die ökologisch orientierte Literatur, die wesentlich auf Kritik am zivilisatorischen Prozess basiert, zeigt sich, dass ihre fundamentalistische Wendung nicht nur antigesellschaftlich ausgerichtet ist, sondern unausgesprochen die Veränderungsmöglichkeit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thematisiert. Nichtsdestoweniger fordern einige feministischen Schriftsteller (wie Monika Maron) weder zur Resignation, noch zur radikalen Revolutionierung der politischen und ökonomischen Strukturen auf. Sie orientieren sich vielmehr in Richtung einer ‘sanften Revolution’ des ökologischen Bewusstseins und eines veränderten Umgangs mit der Natur. Auch die Defizite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Faktoren werden in Hinblick auf eine neue zivilisatorische Deformation in Betracht gezogen. Nicht nur die Realität der Umweltkrise, wie Luft-, Wasser- und Bodenverschmutzung sowie die von Technologie und Industrie

entfremdete Landwirtschaft und deren Arbeitsbedingungen, werden von zahlreichen Literaten dargestellt, auch zukunftsorientierte Alternativen für einen neuen Umgang mit der Krise werden durch ökologische Informationen aufgezeigt. Eine radikale Bestandaufnahme geschädigter Natur erfolgt zwar nicht, doch das Vertrauen in den technischen Fortschritt scheint erschüttert.

키워드:

동독, 생태, 자연, 참여, 여성문학, 종말-문학

DDR, Ökologie, Natur, Engagement, Frauenliteratur, Endzeit-Literatur

투고: 2013년 1월 15일

심사: 2013년 2월 10일/ 2월 11일/ 2월 15일

게재확정: 2013년 3월 15일

E-Mail: hyunpark@kmu.ac.kr

주소: 704-741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삼성한국형아파트 102동 2001호